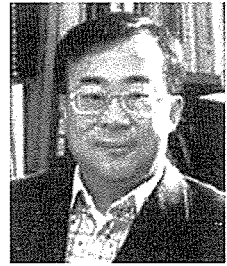




# 유방염 방제관리



박 옹 호  
서울대 수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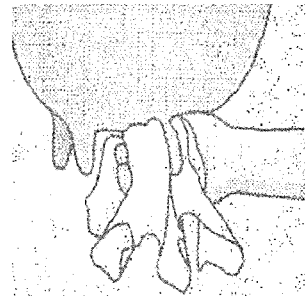
유방염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유방염이 주로 사양관리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양관리에 있어서 중점적인 부분을 위주로 유방염 방제 관리를 실시한다면 유방염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효과적인 유방염 방제관리 요령을 5가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유두 침지 소독 (착유전, 착유후, 건유기)
2. 유방염 감염우의 맨 나중 착유 및 격리
3. 착유기 위생상태 정기점검 및 소독
4. 철저한 건유기 치료
5. 임상형 유방염의 조기발견 및 감수성이 높은 약제를 이용한 치료

이번 칼럼에서는 착유와 관련된 주의점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우선 착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착유 소들에게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젖 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한다. 만약 소가 과민해지거나 놀랐을 경우에는 옥시토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어 착유가 불완전해진다. 이것은 우유생산 감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유방 내에 많은 양의 우유가 남아 있게 하여 세균이 증식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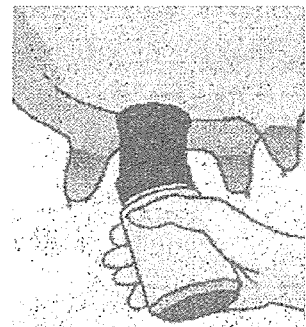
두 번째로 전착유 맛사지와 착유 전 유두침지가

중요하다. 우선 유방이나 유두를 미지근하고 무자극 소독제가 함유된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이 때, 귀찮더라도 일회용 종이수건을 사용하여야 하고, 한 번 사용한 수건은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세균이 다른 착유소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유방세척 소독제는 유기물이 들어가면 효과가 감소되므로 착유과정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용액을 바꿔주어야 한다. 세균이 들어 있는 물이 유두 끝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방과 유두는 세척 후에 즉시 두 번째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그림1) 올바른 유두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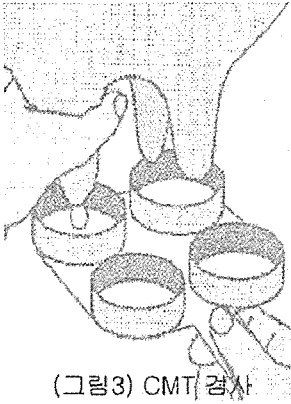
착유 전 유두침지는 새로운 유방염 발생률을 줄이는데 매우 성공적이다. 유두의 2/3 정도가 유두침지 액에 담기게 하고 15~30초 정도를 그대로 놔두어 세균이 죽게



(그림2) 유두침지

착유기 위생상태를 정기점검하고 소독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착유 관리방법을 아는 것은  
우유 생산량 증가와 직접 관련될 뿐 아니라  
유방염 방제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한다. 그런 후에 다시 마른 수건으로 유두를 닦아 준다. 또한 착유가 끝난 후에도 즉시 유두침지를 실시해야 한다. 착유가 끝난 후 유두에 소독액을 분무하거나 침지하면 새로운 유방내 감염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때 유두 끝 부분이 소독액으로 잘 덮여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유두에 파리가 붙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림3) CMT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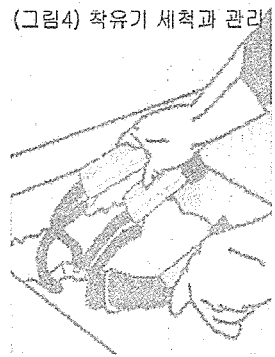
첫 우유 짜내기 또한 새로운 감염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유두에 남아 있던 이전 우유들은 세균이 자라는 좋은 배지가 된다. 따라서 첫 우유를 짜내는 것은 착유 전 증식한

세균이 유방 조직 내로 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이 작업을 통해 CMT 검사나 스타킹 컵 검사를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우유와 유방염 감염 유무를 점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방염 감염우는 맨 나중에 착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만약 이런 점을 지키지 않으면 전 우순에 유방염을 적극적으로 퍼뜨리

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착유기를 청결하게 잘 유지해야 한다. 착유기의 성능은 청결과 보관상태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착유기는 황색 포도상구균과 무유성 연쇄상구균과 같은 전염성 유방염 원인균의 중요한 서식처가 된다. 따라서 착유기 세척만 완벽하게 수행 되더라도 많은 수의 세균을 줄일 수 있다. 체세포수가 높은 목장들의 특징들 중 하나는 착유기 사용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착유기는 그 자체로도 유방염을 우순에 전파시키는 매개체이며 유방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착유기 위생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소독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착유 관리방법을 아는 것은 우유 생산량 증가와 직접 관련될 뿐 아니라 유방염 방제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림4) 착유기 세척과 관리

이처럼 착유 전 후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유방염 방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다음에는 건유기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㉞